

◆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Name of Science

## 學問名稱으로서의 「文獻科學」에 대한 再考

鄭 駉 謨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 副教授)

## I

筆者는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sup>1)</sup>라는 拙稿에서 東·西洋의 圖書館名稱의 變遷過程을 살피고, 그 結論에서 “現在의 「圖書館」은 「文獻館」으로 「司書」는 「文獻士」로 「圖書館學」은 「文獻科學」으로 改稱되는 것이 妥當할 것”<sup>2)</sup>이라는 私見을 發表한 바 있다.

원래 學問의 名稱에 대해서는 그 學問의 內容과 性格에 結付시켜서 論及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筆者가 앞서 論及한 卑見에서는 이를 缺하였으므로 이 問題를 再考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本考는 現在의 「圖書館學」을 그 內容과 性格에 結付시켜서 그 學問의 名稱만을 再考하고자 한다.

## II

「圖書館學」은 本質의 面에서 볼 때 “教育과 調査研究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結果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最善의 條件을 造成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sup>3)</sup>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教育과 調査研究의 窮極의 目的은 學術과 文化의 效果的인 發展에 있으므로 “圖書館學은 學術과 文化의 效果的인 發展을 위한 條件造成의 原理와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sup>4)</sup>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學」을 實際의 面에서 볼 때는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sup>5)</sup>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인 것이다. 그 理由는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 方法” 그 自體가 바로 “學術과 文化의 效果的인 發展을 위한 條件造成의 方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圖書館學」에서는 實際로 ‘文獻을 認識하

기 위한 方法’과 관련해서 「書誌學」乃至「主題別書誌」와 「參考文獻」을 研究하고 있으며, ‘文獻을 蒐集하는 方法’과 關聯해서 「典籍」의 理解나 「書評」 또는 「圖書選擇」을 研究하고 있다. ‘文獻을 整理組織하는 方法’으로서 分類法이나 目錄法(또는 資料組織法)을 研究하고, ‘文獻의 效果的인 運用方法’과 關聯해서 「圖書館組織管理(또는 圖書館運營法)을 研究하고 있다. 이러한 分野의 科學을 綜合하여 「圖書館學」이라는 名稱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른바 「圖書館學」은 그 內容이나 性格으로 보아 施設이나 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資料라고 볼 수 있는 “文獻의 認識, 蒐集, 整理組織 및 그 運用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므로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名稱은 不合理한 것이다. 그렇다고 筆者가 이미 論及한 「文獻科學」이라는 名稱 역시 合理的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文獻自體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科學도 아니기 때문에 그 概念이 模糊하다. 要컨데, “文獻의 認識 蒐集 整理組織 및 그 運用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을 合理的으로 表現할 수 있는 用語를 찾아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文獻을 運用하기 위한 學問’ 또는 ‘文獻을 効用하기 위한 學問’ 등의 概念을 나타낼 수 있는 含蓄性있는 用語를 찾아야 할 것이다.

## III

이에 前提되어야 할 것은 近年에 이르러 「圖書館學」에서 當面하고 있는 情報 또는 情報科學과의 關係를 어떻게 關聯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情報란, 一般的인 概念으로서, “어떠한 事實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知的要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需要者의 立場에서 볼 때는 “問題解決에 有用한 知的

1) 鄭駉謨·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圖書館學 第2輯, 韓國圖書館學會, 1971.

2) ibid. p. 78.

3) id.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中央大學校論文集, 第14輯, 1969. pp. 78. 79.

4) loc. cit.

5) 圖書館用集·韓國圖書館協會 編, 서울, 同協會, 1966.

要素” 또는 “確實性을 追求하기 위한 知的要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情報을 文獻과 關聯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文獻은 情報을 記錄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換言하면 情報은 그것이 記錄化되었느냐의 與否는 不問하고 “어떠한 事實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知的要素” 그 自體를 意味하며, 文獻은 記錄化된 情報만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情報과 文獻과의 差異點은 記錄化與否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文獻은 情報가 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文獻에 記錄된 知的 內容自體는 情報인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는 文獻보다 本質的이고 包括의 이며, 文獻은 記錄된 情報에 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圖書館學」은 “記錄된 情報를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도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情報科學」은 “情報의 發生, 傳達, 蒐集, 蓄積 處理에 대한 一般原理에 관한 새로운 學問的分野”<sup>6)</sup>라고 한다. 이를 實際의인 面에서의 「圖書館學」, 즉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과 對比해 본다면, 「圖書館學」에 있어서의 “文獻(記錄된 情報)의 蒐集, 整理組織, 運用”에 대한 것은 「情報科學」에 있어서의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에 대한 것과 實際에 있어서 對等한 것이다. 따라서 「情報科學」은 “情報의 發生과 傳達” 즉 情報의 源泉의인 것까지 다룬다는 것이 그 差異點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은 方法論이 각기 다를 뿐이며, 그 目的, 즉 “學術과 文化의 效果의인 發展을 위한 條件을 造成한다”고 하는 目的은 一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換言하면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은 兩者가 그 本質과 目的은 同一하나 方法論이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同一한 本質과 目的을 가지고 있으면서 方法論을 달리하는 두가지 體系의 學問은 優劣의 法則上 劣等한 것은 自然淘汰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의 관계는 그 歷史的 文化的 社會的 背景으로 因해서 상당히 長久한 時日을 두고 어느 限界性을 가지고 持續될 것이라고 豫測된다.

그러므로, L.E. Asheim이 “圖書館인들이 情報科學者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情報科學者들도 圖書館人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言及한 바와 같이, 「圖書館學」은 가능한 限 그 範疇 안에서 「情報科學」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美國에서는 ① 既存하는 圖書館學校와는 別途로 情報科學學校를 設立하거나, ② 既存하는 圖書館學校에 「情報科學科」를 두거나, ③ 既存 圖書館學課程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 몇몇 情報科學課程을 追加하거나, ④ 情報科學의 原理가 傳統的인 圖書館學科目에 關聯이 있으면 編入하고 또 새로운 科目을 新設하여 圖書館學校의 全課程을 再編成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趨勢에 並行하여 美國에 있어서의 第③ 또는 第④의 方法을 採用하고 있다는 것을 延世·梨花·中央·成均館의 4個大學 圖書館學科 教科課程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日本의 唯一한 學部 4年制 圖書館學科가 있는 慶應大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對等한 方法으로 教科課程을 再編成하고 學科名稱도 「圖書館情報學科」로 改稱하였다.

IV

上述한 바와 같이 從來의 「圖書館學」은 近年에 이르러 「情報科學」과 複合 또는 融化一路에 있으며, 그 學問名稱도 이의 複合된 概念으로 나타내하고자 하는 名稱으로 改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圖書館學」의 名稱을 이와 같이 改稱해야 할 趨勢에 놓여 있는 것이다.

此際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 「圖書館學」의 名稱을 圖書館學과 情報科學과의 複合된 概念으로 改稱하는데 있어서는, 筆者가 先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記錄類에 대한 汎稱을 「圖書」라고 하기 보다는 「文獻」이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며, 「圖書館」이라는 名稱보다는 「文獻館」이라고 하는 名稱이 그 言語의 概念이나 에메지로 보아 妥當하다<sup>9)</sup>는 것이 認定만 된다면, 日本의 경우처럼 「圖書館情報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文獻情報學」이라고 改稱하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筆者는 앞서 論及한 「文獻科學」<sup>9)</sup>이라고 改稱해야 한다는 提意를 「文獻情報學」으로 修正하는 바이다.

6) 情報化社會事典. 片方善治 監修, 毎日新聞社 編, 東京, 同新聞社, 1971. p. 56.  
7) L.E. Asheim. 專門職教育 및 人事交流問題. 近代化過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 亞細亞太平洋地域圖書館 國際會議報告書·韓國圖書館協會, 1969. p. 61.  
8) ibid. pp. 60, 61  
9) 鄭駉謨.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op. cit. p. 78